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Financial Status of Elderly Households*

-to make a Financial Plan for Retirement Preparation-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수 김 순 미

Dept. of Consumer Sciences 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Soon Mi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선행연구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inancial status of Korean elderly households to make a financial plan for retirement preparation. The sample obtained from 1997 KHPS, consisted of 326 households of 55-64 aged and 210 households of 65 and over aged. Statistics employ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 univariate analysis and logistic analysis. And Lorenz curve and Gini coefficient were used to compare the financial status.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tal income, total expenditure, total debt and net worth of 55-64 aged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65 and over group, while total asset of 55-64 aged group was similar to 65 and over group's. Second, total expenditure to total income ratio(R1) and total asset to total debt ratio(R4) of 55-64 aged group were higher than 65 and over group's, but net worth to minimum cost of living ratio(R2) and financial asset to monthly expenditure ratio(R3) of 65 and over group were higher than 55-64 aged group's. Third, R4's Gini coefficient was the highest and R1's Gini coefficient was the lowest among all Gini coefficients. Also, R1's and R4's Gini coefficients of 55-64 aged group were greater than 65 and over group's, however R2's and R3's Gini coefficients of 65 and over group were greater than 55-64 aged group's. Fourth, variables affecting R1's stability of 55-64 aged group were household head's age, educational attainment and family type, while those of 65 and over group were household head's age, past economic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children. There was no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R2's stability of

*본 논문은 1997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수 국내교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55-64 aged group, but there was only household head's past economic experience affecting those of 65 and over group. The variable contributing to R3's stability of 55-64 aged group was residence while the variables of 65 and over group were household head's educational attainment, past economic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children. The variables contributing to R4's stability of 55-64 aged group were the number of children and residence, and the number of children was one variable of contributing to R4's stability of 65 and over aged group.

I. 문제의 제기

인간이 추구하는 다양한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가운데, 재정적 자립과 은퇴계획에 대한 전략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재정문제와 미래의 은퇴에 대해 각자 그 중요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의 미래지향적 특성때문에 현재지향적인 재정문제보다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나 축소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이나 정보없이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계획의 비효율성때문에 노후에 재정적 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후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의 영위, 그리고 노인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재정적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를 위한 재무계획이 필요하게 된다(이희숙, 1995).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은 은퇴후 생활수준유지와 같은 미래효용의 극대화뿐 아니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상태의 유지와 향상과 같은 현재효용의 극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Bernheim, 1994; Kennickell, Starr- McCluer & Sunden, 1997에서 재인용).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은 재무계획의 필요성 인식, 미래 노후생활에 대한 재정적 목표의 설정과 전망,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수립과 수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Mittra, 1993; Kapoor, Dlabay & Hughes, 1996), 이러한 세 단계 중 가장 불확실한 것은 미래 노후생활에 대한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망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현재의 노인기의 재정상태의 파악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개인이나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떠한 측정방법도 모든 목적에 적합할 수 없다(Crystal & Shea, 1990). 일반적으로 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을 위한 측정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재정자원의 유량 및 저량분석, 재무율분석 및 재정자원 분포에 대한 불평등도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량 및 저량분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객관적·절대적 측정방법이며, 재무율분석은 개인이나 가계로 하여금 재정적 목표에 도달하게 함으로서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하는데 유용한 객관적·상대적 측정방법이다(DeVaney, 1993). 이에 반해 불평등도 분석은 개인이나 가계의 집단간 재정상태를 비교하는데 유용한 객관적·상대적 측정방법이다.

노인기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재정상태에 대한 분석수준과 범위에 있어서 다양성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노인기 재정상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재정자원의 유량 및 저량측정방법(Danziger, Van Der Gaag, Smolensky & Taussig, 1982-1983; Menchik & David, 1983; Torrey & Taeuber, 1986; Smeeding, 1989; Radner, 1987, 1990에서 재인용)과 재정자원의 불평등도 분석(Radner, 1987; Hurd, 1990; Crystal & Shea, 1990; Wang, 1995; 김기덕·손병돈, 1995; 김대성, 1995; 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 문숙재·김순미, 1997; 김연정, 1998a; 김연정, 1998b) 등을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반면 재정자원의 재무율 측정(Griffith, 1985; Mason & Griffith, 1988; Prather, 1990; Lytton, Garman & Porter, 1991)에 의한 연구들은 초기적 단계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하나의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연구

가 대부분이었으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양정선, 1997; 김연정, 1998a; 김연정, 1998b; 최윤지·최현자, 1998).

이에 본 연구는 재무계획 수립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자원의 유량 및 저량분석과 재무율분석, 재정자원 불평등도 분석 등의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재정상태를 측정하고, 또 재무율을 기초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정자원의 장기적 배분과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은퇴전의 재무계획

은퇴전의 재무계획은 현재의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은퇴기에 직면할 재정적 문제나 위기를 예방하며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래소비와 현재소비의 균형을 위해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유도하고, 미래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전 생애주기간의 효용극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숙재·김순미, 1997).

일반적으로, 재무계획은 개인이나 가계가 독특한 재정상태에 처해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시작되며, 재정상태의 규명은 문제해결을 위한 재무계획 단계를 유도하게 된다. 특히 재무계획에 대한 요구는 생애주기 후기로 갈수록 커지고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에는 더욱 확대된다. 축소기나 은퇴기에 있는 개인과 가계가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를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은퇴를 대비하여 자산의 포트폴리오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이 생애주기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Mittra, 1993; Kapoor, Dlabay & Hughes, 1996). 그러므로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현재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여 은퇴후 도달할 재정적 목표와 전망을 파악해야 하며(Prather, 1990), 이는 재정상태의 현재 가치를 분석하여 시간선호에 따른 미래 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재정상태의 측정방법

재정상태는 재정자원과 재정적 요구의 두 차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인이나 가계의 재정자원은 개인이나 가계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재정자원은 물론 인식하지 못하는 재정자원도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김순미, 1993).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고려할 때, 자신이 현재 보유하거나 또는 미래에 보유하게 될 재정자원을 평가하게 된다. 이때, 은퇴전에 축적된 재정자원이 은퇴기 동안의 재정적 목표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은퇴결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축적된 재정자원이 불충분하다면 부가적인 재정자원이 축적되는 시기까지 은퇴를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Li, Montalto & Geistfeld, 1996).

재정상태 분석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측정방법은 측정지표를 측정목적과 측정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Radner, 1992),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측정방법으로는 재정자원의 유량 및 저량 측정방법, 재무제표의 상대적 비율을 측정한 재무율 측정방법, 재정자원 분포의 측정방법 등을 들 수 있다.

(1) 재정자원의 유량 및 저량분석

재정상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측정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재정자원의 유량 및 저량분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재정자원의 절대액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시계열분석을 하는데 용이하다는 점때문에 많이 적용된다(DeVaney, 1993; Hong & Swanson, 1995).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정지표로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소득이다(Radner, 1987, 1990; Grad, 1990; Hong & Swanson, 1995; 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 1996). 소득은 자료획득이 쉬운 반면(Hurd, 1990), 소득원천의 평가절상이나 평가절하의 폭이 크고 소득액이 부정확하기 때문(김태성, 1995)에 재정상태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지출은 과거와 미래생활뿐 아니라 현재생활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능력과 빈곤정도를 반영해 주며, 현재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측정하는데 안정적이고 예상치 못한 소득과 같은 임시적 특성이 적기 때문에 재정상태 평가에 중요하다(Garner, 1993; 류정순, 1996). 자산은 위험대처능력을 높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상태 분석에 중요하지만 소득이나 지출에 비해 보유량과 유형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Upp, 1983; Torrey & Taeuber, 1986; Hurd, 1987; Radner, 1987, 1990, 1992; Crystal & Shea, 1990; Prather, 1990; 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 1996에서 재인용). 한편 부채는 효용의 증가나 자산축적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지만 생애주기동안 자산과 부채간의 포트폴리오 불균형이 심각해지면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상태 측정에 있어서 부채는 자산과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순자산은 일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을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정적 측정지표로서, 특히 지불능력과 재정부담능력,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Hanna & Prather, 1989; Hurd, 1990; 김연정, 1991; 김순미, 1993; Fitzimmons & Leach, 1994).

(2) 재무율 측정방법

재무율은 재정자원간의 상대적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지표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통찰과 효율적 예측이 가능하다. 더욱이 측정의 사실성때문에 재정상태에 대한 판단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집단간 비교가 용이하다(Lytton, Garman & Porter, 1991; Bae, Hanna & Lindamood, 1993; Hong & Swanson, 1995).

재무율의 측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적용하지만 측정목적에 따라 측정지표가 다르다. 재정상태의 측정방법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단기지출율과 장기지출율, 긴급상황의 대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유동성율과 부채상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구성된 측정지표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측정지표로 구성하는 경우 해석의 오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정상태의 논의와 분석에 효율적이다(DeVaney, 1993; Hong & Swanson, 1995).

단기지출율은 현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지출 대 총소득의 재무율로 측정한다. 사람들은 미래소비보다 현재소비를 원하지만, 노후준비를 위해 현재소비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다(문숙재 · 김순미, 1997). 단기지출율은 1보다 적으면 잉여소득으로 긴급자금이나 순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고, 1이면 지출과 소득이 균형을 이루지만, 1보다 크면 초과지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준거기준은 1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ae, Hanna & Lindamood, 1993). 한편 장기지출율은 자산 대 지출의 재무율로 측정하며 장기적인 생활유지기간을 나타낸다. 이때 자산지표는 긴급상황 대처능력이나 지불능력, 장기적인 재정부담상태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총자산이나 순자산을 주로 사용하며(Crystal & Shea, 1990), 지출지표는 일반지출액이나 최저생계비를 적용한다. 그러나 장기지출율은 측정대상이나 측정목적에 따라 그 준거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유동성율은 유동자산 대 지출의 재무율로 측정하며, 단기지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유동자산은 긴급할 때 지출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고, 시간이 충분하면 가치손실없이 지출할 수 있다. 유동성율은 측정지표의 구성에 따라 다른데, Griffith(1985)는 유동자산 및 기타자산 대 월지출액의 준거기준을 6, 양정선(1997)은 금융자산 대 월지출액의 준거기준을 3, 최윤지 · 최현자(1998)는 유동자산 대 월지출액의 준거기준을 3으로 제시하였다. 부채상환율은 총자산 대 총부채의 재무율로서 부채지불능력과 미래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이다(DeVaney, 1993; Garman & Forgue, 1997). 부채상환율이 1보다 크면, 순자산을 갖기 때문에 미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다. 그러나 부채상환율이 1이면 긴급지출이 필요할때 부채가능성이 커지며, 1보다 적으면 지속적인 부채상태에 있게 된다(Winger & Frasca, 1993; DeVaney, 1993; 양정선, 1997; 최윤지 · 최현자, 1998).

(3) 재정자원 분포의 불평등도 측정방법

재정상태는 재정자원의 불평등도 분석에 의해서도 측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Lorenz곡선과 Gini계수를 사용한다. Lorenz곡선은 분위별 누적 가계백분율과 누적 소득백분율간의 함수로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하는 개인이나 가계가 소유한 재정자원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한편 Gini계수는 Lorenz곡선의 평등선을 나타내는 총삼각면적분 대 불평등곡선 면적의 비율로, Lorenz곡선이 완전평등선과 떨어져 있는 정도이므로 지위불평등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Gini계수가 1인 경우 모든 재정자원을 한 가구가 분배받는 완전 불평등분배, 0은 완전 평등분배, 0.5이상이면 높은 불평등분배, 0.4이하이면 낮은 불평등분배, 0.4-0.5이면 중간 불평등분배이다(박홍림, 1991; 김태성, 1995; 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 1996).

재정상태를 재정자원의 불평등도로 평가한 국내연구는 임금분포의 변화, 소득원천에 따른 임금분포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며(주학중, 1982; 박훤구, 박세일, 1984; 김기덕, 손병돈, 1995; 김연정, 1998a에서 재인용), 국외연구들은 연령에 따른 재정자원의 불평등도를 분석한 연구가 일반적이다(Crystal & Shea, 1990; Garner, 1993; Wang, 1995).

Crystal & Shea(1990)은 누적된 이익/불이익모델을 적용하여 노인가계의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노인가계의 부(wealth)가 젊은 가계에 비해 누적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도가 높다고 밝혔다. Garner(1993)는 소비를 기준으로 빈곤수준의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소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보다 낮게 추정되었다고 하였다. Wang(1995)은 Lorenz곡선과 Gini계수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지출을 이용한 재정상태의 추정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1996)은 Lorenz곡선과 Gini계수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이 지출에 비해 불평등하였으며, 특히 노인가계의 소득분포가 비노인가계보다 불평등하였다. 또 자산과 부채의 불평등도는 소득과 지출에 비해 불평등하였으며 특히 부채가 불평등하였다.

이상과 같이 Lorenz곡선과 Gini계수를 적용한 재정자원 분포의 불평등도 분석은 준거집단의 상대적 평가에 중요하며, 생애주기를 통해 재정자원 분포의 불평등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나 금융정책, 빈곤선을 책정하는 공공정책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척도이다(Wang, 1995; 김연정, 1998a).

3.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이나 가계가 노후준비나 은퇴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은퇴기를 위해 확보된 재정자원이 충분한가의 여부이다. 이처럼 재정자원의 충분성여부는 재정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나 은퇴시 적절한 재정자원의 확보정도를 의미하며, 재정안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가계는 적절한 생활수준, 미래의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등의 측면에서 재정안정상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왔으며, 그 결과 재정자원의 충분성에 관한 기존연구는 소득과 저축, 재정적 위험에 대한 준비도, 일반소비수준, 순자산 만족 등과 같이 유량 및 저량의 재정자원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Davis & Helmick, 1985). 그러나 최근에는 재무율의 준거기준에 따라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재정자원의 측정보다는 재무율의 측정에 의한 정보가 더욱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Bae, Hanna & Lindamood(1993), 김연정(1998a) 등의 연구는 재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초과지출유형을 파악하였고, 양정선(1997)은 재정안정상태를 뜻하는 재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금융자산 대 월지출액의 재무율과 주관적 최저생계비 대 월소득액의 재무율의 준거기

준에 따라 재정안정상태를 구분하였다. 또 최윤지·최현자(1998)는 소득 대 소비의 재무율, 유동성율, 부채부담율, 자본축적비율 등을 평가하면서 각 준거기준에 따라 재정만족상태를 파악하였다.

이처럼 재무율에 기초한 재정상태, 즉 재정자원의 충분성, 재정안정상태, 재정만족상태 등은 개인이나 가계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가족 및 가구관련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의 연령증가는 충분한 재정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율보다 저축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교육수준은 재무계획 능력과 정적관계를 가지므로 은퇴후 충분한 재정자원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 및 자산수준도 정적관계를 가져 단기지출율이나 장기지출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i, Montalto & Geistfeld, 1996). 재정자원의 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업도 들 수 있는데, 전문직이나 관리직은 재정자원을 증가시킬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은퇴시의 재정상태는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지적, 경제적 조건을 갖춘 직업적 지위에 있을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했을 때,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할때 다른 직종에 비해 은퇴계획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한 Foster(1996)의 연구결과처럼 은퇴기의 재정상태가 직업유무와 직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인의 과거 경제경험이나 인식은 현재의 재무관리나 미래를 위한 재무계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 김연정, 1998a; 김연정, 1998b).

한편 가족과 가구관련요인에 있어서 자녀수와 가족형태는 지출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긴급자금의 대처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재정안정상태와 관련이 있다. 즉, 자녀수가 많으면 자녀를 위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정적 영향을 미쳐 지출율과 정적 관계를 보이며, 가족형태는 자녀부양이나 부모부양 등에 의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쳐 재정안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부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채부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arlowe & Godwin, 1988; 김연정, 1998a에서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재무율의 준거기준에 근거한 재정상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과거경제경험, 자녀수, 가족형태 및 거주지역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수립의 전단계로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가계의 재정자원의 유량과 저량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인가계의 재무율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불평등도는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해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6,720명을 다단계 표본추출확률방법으로 표집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료중 부부가 모두 응답한 2214가계 중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55세이상인 536가계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을 55세로 기준한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1991)과 통계청조사에서 노인과 비노인의 기준연령을 55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재정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4.09세였던 점에 근거하여

55-64세의 노인가계와 65세이상의 노인가계로 구분하였다.

(2) 분석방법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일반적 특성 및 재정자원의 유량과 저량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노인가계의 재무율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단기지출율, 장기지출율, 유동성율, 부채상환율의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불평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기지출율, 장기지출율, 유동성율, 부채상환율의 10분위계수와 Gini계수를 측정하였다. 또 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기지출율, 장기지출율, 유동성율, 부채상환율의 준거기준에 따라 재정안정상태와 재정불안정상태의 이항변수로 구성한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 의 및 측 정 방 법			
종속변수				
단기지출율(R1)	총지출액/총소득액	1=R2< 1.00,	0=R2≥ 1.00	
장기지출율(R2)	순자산액/최저생계비액	1=R4>60.00,	0=R4≤60.00	
유동성율(R3)	금융자산액/월평균 지출액	1=R1> 3.00,	0=R1≤ 3.00	
부채상환율(R4)	총자산액/총부채액	1=R3> 1.00,	0=R3≤ 1.00	
가구주 및 부인 관련요인				
가구주의 연령	1=55-64세	2=65세이상		
가구주의 교육수준	교육년수(년)			
가구주의 과거경제경험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가구주의 취업여부	1=취업(봉급생활/자영업 및 자유업/농림수산업/비정규직 등)			
	0=비취업 및 무직			
부인의 취업여부	1=취업(봉급생활/자영업 및 자유업/농림수산업/비정규직 등)			
	0=비취업 및 무직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				
자녀수	동거자녀수(명)			
가족형태	1=핵가족	0=확대가족		
거주지역	1=서울시	2=광역시	3=중소도시	4=군부지역
재정 관련요인				
가계총소득액	가계의 연간 근로소득액(만원)+가계의 연간비근로소득(만원)			
	(급여소득액+상여금액+자영소득액+부업소득액+자산소득액+이전소득액+기타)			
가계근로소득액	가계의 연간 총근로소득액(만원)			
	(급여소득액+상여금액+자영소득액+부업소득액)			
가계비근로소득액	가계의 연간 총비근로소득(만원)			
	(자산소득액+이전소득액+기타)			
가계총지출액	가계의 연간 총지출액(만원)			
가계최저생계비액	가계의 월간 최저생계비액(만원)			
가계총자산액	가계금융자산액(만원)+가계실물자산액(만원)			
가계금융자산액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액(만원)			
	(저축액+주식보유액+채권보유액+보험불입액+계불입액+사채준금액)			
가계실물자산액	가계의 보유주택가격(만원)			
가계총부채액	가계의 부채보유액(만원)			
	(금융기관부채액+사채액+월부 및 외상액)			
가계순자산액	총자산액-총부채액(만원)			

후 Logit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Logit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모든 절차는 SAS PC Program에 의해 이루어졌다.

(3) 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

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55-64세 노인가계가 326가계, 65세이상 노인가계가 210가계였으며 55-64세 노인가계의 가구주와 부인의 평균연령은 59.43세와 55.59세, 65세이상 노인가계는 71.32세와 65.45세였다.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가구주의 평균 교육년수는 8.72년으로 중졸의 교육수준을 보였으며, 주부의 평균 교육년수는 6.36년으로 초등학교 졸업수준을 보였다. 직업에 있어서는 가구주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71.8%, 부인이 취업한 경우는 13.5%였으며, 핵가족은 78.8%, 평균 동거자녀수는 1.54명이었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18.7%로 가장 적었고 중소도시가 가장 많아 27.3%를 보였는데 이는 가구주의 직업이 농림수산업에 많았던 점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가구주의 과거경제경험은 2.70점으로 약간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이상 노인가계의 경우, 가구주의 평균 교육년수는 6.04년, 주부의 교육년수는 4.09년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가구주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41.0%,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표 2〉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일반적 특성 (N = 536)

범주변수 \ 표본가계		55-64세(326)		65세이상(210)	
		빈도	%	빈도	%
가구주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14	65.6	183	87.1
	고졸	83 25.5	18	8.6	
	전문대졸이상	29	8.9	9	4.3
가구주의 직업	봉급생활	81	24.8	12	5.7
	자영업/자유업	64	19.6	21	10.0
	농림수산업	89	27.3	53	25.2
	비정규/무직	92	28.2	124	59.0
부인의 취업유무	있음	44	13.5	15	7.1
	없음	282	86.5	195	92.9
가족형태	핵가족	257	78.8	174	82.9
	확대가족	69	21.2	36	17.1
거주지역	서울	61	18.7	35	16.7
	광역시	79	24.2	38	18.1
	중소도시	89	27.3	57	27.1
	군부지역	97	29.8	80	38.1
연속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주의 연령(세)		59.43	2.90	71.32	5.25
주부의 연령(세)		55.59	4.54	65.45	6.10
가구주의 교육수준(년)		8.72	3.90	6.04	4.23
주부의 교육수준(년)		6.36	3.28	4.09	3.61
가구주의 과거경제경험(점)		2.70	0.77	2.61	0.73
자녀수(명)		1.54	1.24	0.57	0.96

는 7.1%로 나타나 55-64세 노인가계에 비해 낮은 취업율을 보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2.9%였고 평균 동거자녀수는 0.57명이었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16.7%로 가장 적었고 중소도시, 군부지역이 65.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가구주의 주된 직업이 농림수산업인 점과 가구주의 은퇴로 거주지역을 이동한 점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가구주의 과거경제경험은 2.61점으로 55-64세 집단보다 약간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분석결과

1.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재정자원의 유량 및 저량분석

연령집단별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총소득액을 보면, 55-64세 노인가계는 2,405만원이었으나 65세이상 노인가계는 1,363만원으로 연령이 낮은 가계의 56.70% 수준이었다. 총소득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55-64세 노인가계 중 근로소득을 갖는 가계는 306가계였지만, 65세이상 노인가계중 근로소득을 갖는 가계는 144가계, 비근로소득을 갖는 가계는 152가계였다. 또 근로소득액과 비근로소득액은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각각 1,981만원, 1,192만원, 65세이상 노인가계는 1,122만원, 821만원으로 두 집단 모두 근로소득액이 비근로소득액보다 높았다. 이러한 소득구성의 변화는 연령증가에 따른 가구주의 취업율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55-64세 노인가계의 비근로소득은 주로 자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인 반면, 65세이상 노인가계의 비근로소득은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연령증가에 따라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증가에 따라 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한 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1996)의 연구결과와 같다.

총지출액에 있어서는 55-64세 노인가계가 총소득의 68%를 지출했으며, 65세이상 노인가계는 총소득의 69%를 지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후 생계비가 은퇴전 생계비의 최소한 70%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한 Mittra(1993), Garman & Forgue (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월평균 최저생계비액에 있어서 55-64세 노인가계는 총지출액의 82%를 나타냈지만, 65세이상 노인

〈표 3〉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재정상태 (N = 536)

표본가계 / 재정상태	55-64세(326)			65세이상(210)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총소득액(만원/년)	326	2404.563	2012.170	210	1363.461	1535.846
근로소득액(만원/년)	306	1981.042	1526.753	144	1121.590	1113.351
비근로소득액(만원/년)	149	1192.540	1525.405	152	821.170	1185.452
자산소득액(만원/년)	82	2359.322	5686.089	64	1460.106	2824.352
이전소득액(만원/년)	77	376.286	349.842	116	351.983	279.370
기타소득액(만원/년)	36	951.389	522.391	15	689.333	566.133
총지출액(만원/년)	326	1634.245	1097.388	210	950.857	837.975
최저생계비액(만원/월)	322	111.736	66.632	208	80.808	64.029
총자산액(만원)	326	6700.675	6191.035	210	6687.057	6393.141
금융자산액(만원)	248	1133.028	1247.276	123	1194.488	1509.025
실물자산액(만원)	320	5948.216	5891.547	207	6074.203	5884.072
총부채액(만원)	176	1240.449	1575.055	66	803.970	1017.970
순자산액(만원)	173	5220.554	5820.777	64	4807.266	6095.234

가계는 총지출액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특히 65세이상 노인가계의 저축이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령집단별 노인가계의 총자산액은 두 집단이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금융자산액과 실물자산액은 55-64세이상 노인가계가 65세이상 노인가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두 집단은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이 더 많았으며, 총자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55-64세 노인가계의 금융자산액과 실물자산액이 65세이상 노인가계보다 많았던 김연정(1998a)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노인가계의 자산구성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크다고 한 Torrey & Taeuber(198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 1996에서 재인용). 한편 55-64세 노인가계 중 부채가 있는 가계는 평균 1,240만원의 부채를, 65세이상 노인가계는 평균 804만원의 부채를 보유하였다. 이처럼 연령증가에 따라 부채액이 감소한 것은 김연정(1998a)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녀교육, 자녀결혼 및 분가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총자산액과 총부채액에 따른 순자산액은 55-64세 노인가계보다 65세이상 노인가계의 순자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64세 노인가계중 순자산을 보유하는 가계는 53%, 65세이상 노인가계 중 순자산을 보유하는 가계는 30%으로, 두 집단의 순자산은 주로 실물자산에 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65세이상 노인가계의 실물자산액만이 55-64세 노인가계보다 높았을 뿐 그 밖의 재정상태는 55-64세 노인가계가 65세이상 노인가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재무율분석

연령집단별로 노인가계의 재무율을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55-64세 노인가계와 65세이상 노인가계의 단기지출율은 모두 1보다 적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상태였다. 또 55-64세 노인가계는 소득중 5%정도의 저축을 할 수 있었지만 65세이상 노인가계는 거의 저축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중단될 때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에 의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장기지출율을 보면, 55-64세 노인가계는 4년반정도, 65세이상 노인가계는 약 5년 가까이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5년정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기지출율은 연령이 낮은 노인가계가 순자산액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재취업이나 자녀들의 경제적 보조에 의해 생활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령집단별 유동성율을 보면, 55-64세 노인가계와 65세이상 노인가계는 각각 10개월, 15개월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하였으며, 연령이 높은 가계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55-64세 노인가계의 금융자산액이 약간 많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월평균 지출액이 감소한 결과로 판단되며, 농촌 중 · 노년기 가계의 유동성율을 평가한 최윤지 · 최현자(1998)의 연구결과에 비해 높은 유동성율을 보이는 것이다.

또 부채상환율을 보면, 55-64세 노인가계는 총부채액의 59배정도의 총자산액을 보유한 반면, 65세이상 노인가계는 총부채액의 30배정도의 총자산액을

〈표 4〉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재무율

(N = 536)

재정상태 \ 표본가계	55-64세(326)			65세이상(210)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단기지출율(R1)	326	0.953	1.075	210	0.990	1.055
장기지출율(R2)	170	53.248	66.827	64	57.384	83.634
유동성율(R3)	248	9.690	12.826	123	14.930	20.208
부채상환율(R4)	176	59.165	242.222	66	30.107	57.349

보유하여 65세이상 노인가계의 부채부담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 후기로 갈수록 부채상환율이 증가한 양정선(199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자녀결혼, 유산상속, 주택규모감소, 은퇴로 인한 소득중단 등으로 총자산액의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단기지출율과 부채상환율은 65세이상 노인가계가 55-64세 노인가계에 비해 불안정한 재정상태를 보였으며, 장기지출율과 유동성율은 55-64세 노인가계가 65세이상 노인가계에 비해 불안정한 재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각각의 재무율 편차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재정상태 불평등도분석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재정상태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각 재무율의 10분위계수 및 Gini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55-64세 노인가계의 단기지출율 10분위계수를 보면, 최하 10%는 총소득의 43%를 지출하였으나 최상 10%는 총소득의 250%정도를 지출하였다. 특히 상위 30%의 노인가계는 총지출과 총소득이 같거나 총지출이 총소득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산이나 부채를 통해 생계비를 지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65세이상 노인가계는 최하 10%가 총소득의 48%를 지출했으며, 최상 10%는 총소득의 300%이상을 지출하였다. 특히 상위 50%는 총지출이 총소득과 같거나 총소득을 초과하고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기지출율을 동일한 분위계수와 비교할 때, 65세이상 노인가계는 55-64세 노인가계보다 약간 높았는데,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총지출액의 감소율이 총소득의 감소율에 비해 약간 높았던 〈표 3〉의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장기지출율의 10분위계수를 보면, 55-64세 노인가계의 최하 10%와 하위 20%는 각각 최저생계비의 38배, 7배의 부채가 있었으며, 이는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파산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최상 10%는 순자산으로 22년정도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5세이상 노인가계도 55-64세 노인가계와 유사하게 최하 10%와 하위 20%가 각각 36배, 9배의 부채가 있었지만 최상 10%는 보여 20년정도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장기지출율을 동일한 분위계수와 비교할 때, 연령집단별 하위 30%는 65세이상 노인가계가 높았고 하위 40%부터 80%까지는 55-64세 노인가계가 높았으며 상위 20%에서는 다시 65세이상 노인가계가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65세이상 노인가계가 55-64세 노인가계보다 불평등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표 3〉에서와 같이 연령증가에 따른 최저생계비액의 감소폭이 순자산의 감소폭에 비해 적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또한 유동성율의 10분위계수를 살펴 보면, 55-64세 노인가계의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당월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하위 20%는 당월의 생활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고, 최상 10%는 5년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65세이상 노인가계의 최하 10%는 55-64세 노인가계처럼 당월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최상 10%는 6년반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계수를 연령집단별로 보면, 하위 40%의 65세이상 노인가계는 55-64세 노인가계보다 낮았으며, 하위 50%이상은 55-64세 노인가계보다 높았다. 이처럼 65세이상 노인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55-64세 노인가계보다 평균 총지출액이 적고 보유한 금융자산액 수준이 유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채상환율의 10분위계수를 보면, 55-64세 노인가계의 최하 10%와 하위 20%는 각각 총부채액의 24%정도, 총부채액의 84%정도가 되는 총자산을 보유하였으며, 이는 부채지불능력이 없는 가계파산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하위 30%이상은 총자산액이 총부채액을 능가하였으며, 특히 최상 10%는 총부채액의 1,127배의 총자산을 보유하여 다른 분위계수에 비해 매우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또 65세이상 노인가계의 하위 20%는 총자산이 총부채액보다 적었지만 최상 10%는 총부채액의 177배의 총자산을 보유하였다. 부채상환율을 동일한 분위계수와 비교할 때, 최상 10%는 55-64세 노인가계가 높았으나 하

<표 5>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재정상태 불평등도 (N = 536)

10분위계수	55-64세 (326)				65세이상(210)			
	단기지출율 (R1)	장기지출율 (R2)	유동성율 (R3)	부채상환율 (R4)	단기지출율 (R1)	장기지출율 (R2)	유동성율 (R3)	부채상환율 (R4)
하위 10%	0.432	-38.453	0.238	0.240	0.480	-35.778	0.237	0.188
하위 20%	0.627	-7.387	0.967	0.840	0.664	-8.761	0.887	0.914
하위 30%	0.707	5.879	2.152	1.650	0.781	6.637	2.108	2.187
하위 40%	0.776	18.294	3.388	2.810	0.878	17.936	3.313	3.601
하위 50%	0.831	29.792	4.758	4.810	0.992	23.351	4.966	5.346
하위 60%	0.878	40.994	6.215	7.430	1.000	32.432	7.208	7.858
하위 70%	0.962	51.652	8.024	11.100	1.000	41.159	11.609	12.025
하위 80%	1.000	66.943	11.424	16.790	1.000	59.439	18.211	19.817
하위 90%	1.000	92.137	16.949	41.470	1.000	109.250	27.258	54.997
하위100%	2.505	267.817	61.307	1127.000	3.038	248.318	79.263	177.040
Gini계수	0.2424	0.6070	0.5763	0.8711	0.2049	0.6416	0.5959	0.7376

위30%부터 상위 20%까지는 65세이상 노인가계가 높았는데, 이처럼 55-64세 노인가계가 65세이상 노인가계보다 불평등한 것은 두 연령집단의 총자산액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65세이상 노인가계의 총부채액이 55-64세 노인가계보다 적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령집단별 노인가계의 재무율에 기초한 Gini계수를 보면, 단기지출율의 Gini계수는 55-64세 노인가계와 65세이상 노인가계가 모두 낮은 불평등도를 보였다. 그러나 장기지출율의 Gini계수는 두 집단 모두 높은 불평등도를 보였고, 유동성율의 Gini계수도 두 집단 모두 높은 불평등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부채상환율의 Gini계수는 두 집단 모두 다른 재무율의 Gini계수에 비해 가장 심한 불평등도를 보였다. 이처럼 재무율의 Gini계수 비교에서 나타나는 불평등도의 차이는 장기지출율, 유동성율, 부채상환율 등의 재무율이 표준편차가 큰 금융자산액, 총부채액 및 순자산액 등의 측정지표를 적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재정안정상태

연령집단별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재무율의 준거기준에 의해 재정안정상태와 재정불안정상태를 구분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단기지출율의 준거기준은 Lytton, Garman & Porter(1991), Garman & Porter(1991), 양정선(1997), 최윤지·최현자(1998)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1로 정하였으며, 재정안정상태에 해당되는 55-64세 노인가계는 68.4%, 65세이상 노인가계는 43.8%였다. 이러한 결과는 65세이상 노인가계의 절반이상이 초과지출상태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연간총지출 대 연간총소득 비율을 적용하여 13.7%의 초과지출을 보인 양정선(1997)의 연구와 월평균 소비지출 대 월평균 가처분소득 비율을 적용하여 35.3%의 초과지출을 보인 최윤지·최현자(1998)의 연구에 비해 재정불안정상태이다.

그리고 장기 지출율의 준거기준은 <표 4>의 평균 재무율에 근거하여 5년정도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60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준거기준에 의해 55-64세 노인가계의 31.2%가 재정안정상태에 있었으며, 65세이상 노인가계는 26.6%가 재정안정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중 70% 정도가 재정불안정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특히 여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55-64세 노인가계가 심각한 재정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동성율은 Griffith(1985), Mason & Griffith

<표 6>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재정안정상태

(N=536)

재무율준거기준 \ 노인가계		55-64세(326)		65세이상(210)	
		빈 도	% Meeting	빈 도	% Meeting
단기지출율 (R1)	〈 1.00	326	68.4	210	43.8
장기지출율 (R2)	〈60.00	170	31.2	64	26.6
유동성율 (R3)	〉 3.00	248	69.6	123	74.8
부채상환율 (R4)	〉 1.00	176	86.4	66	89.4

(1988), Prather(1990), DeVaney(1993), 양정선(1997)의 연구에 따라 준거기준을 3으로 정했으며, 이러한 준거기준을 적용할 때 재정안정상태에 있는 55-64세 노인가계는 69.6%, 65세이상 노인가계는 74.8%였다. 이러한 결과는 53.7%의 유동성율을 보인 양정선(1997)의 연구와 28.8%를 보인 최윤지·최현자(1998)의 연구보다 높은 결과로서, 조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결과로 판단된다.

부채상환율은 Marlowe & Godwin(1988), Prather(1990), 양정선(1996)의 연구에 근거하여 준거기준을 1로 하였다. 그 결과, 재정안정상태에 있는 55-64세 노인가계는 86.4%, 65세이상 노인가계는 89.4%였는데, 이는 총자산과 총부채에 의한 부채상환율을 적용했을 때 부채부담능력이 없는 파산가계가 4.3%였다고 한 양정선(1997)의 연구와 순자산과 총부채에 의한 부채부담비율을 적용했을 때 부채부담능력이 없는 중·노년기 농촌가계가 16.9%였다고 보고한 최윤지·최현자(1998)의 연구에 비해, 매우 불안정한 재정상태이다.

(2) 노인가계의 연령집단별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① 단기지출율 및 장기지출율에 의한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가계의 단기지출율 및 장기지출율 준거기준에 의한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단기지출율에 의한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교육수준, 그리고 가족형태였으며,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형태였다. 즉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기지출율에 의한 재정상태는 불안정했는데, 이는 연령와 주관적 최저생계비 대 월소득 비율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양정선(199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재정상태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재무관리능력에 기인한 것(문숙재·김순미, 1997)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인 경우 재정안정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확대가족인 경우 자녀소득이나 기타가족원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단기지출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65세이상 노인가계의 단기지출율에 의한 재정상태는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과거경제경험, 그리고 자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수였다.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기지출율에 의한 재정상태는 불안정했으며, 과거의 경제생활에 대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재정상태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과거의 경제경험에 대해 만족할수록 재정상태가 안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소득 및 지출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자녀수와 재정안정상태의 정적 관계는 자녀소득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증가가 단기지출율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장기지출율에 의한 재정상태에 있어서, 55-64세 노인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으며 65세이상 노인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과거경제경험뿐이었다. 즉, 가구주가 과거 경제생활에

<표 7> 노인가계의 단기지출율 및 장기지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정안정상태 재무율 / 변 수	단기지출율				장기지출율			
	55-64세(326)		65세이상(210)		55-64세(326)		65세이상(210)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가구주 및 부인관련변수								
가구주연령	-0.104*	0.047	-0.092*	0.035	0.095	0.057	-0.011	0.058
가구주교육수준	0.070*	0.034	0.020	0.041	0.031	0.041	0.008	0.066
가구주과거경제경험	0.309	0.168	0.471*	0.230	-0.061	0.197	-0.669*	0.344
가구주직업(취업)	0.276	0.289	0.308	0.356	0.272	0.369	0.377	0.655
부인직업(취업)	0.098	0.298	0.419	0.427	-0.056	0.370	0.077	0.687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								
자녀수	0.137	0.106	0.634**	0.204	0.074	0.128	0.406	0.272
가족형태(핵가족)	-0.680*	0.334	-0.203	0.454	0.284	0.394	0.331	0.809
거주지역(군부지역)								
서울시	0.386	0.915	0.481	-0.000	0.470	0.626	0.811	
광역시	0.487	0.349	0.192	0.467	-0.182	0.436	0.219	0.849
중소도시	0.605	0.343	0.358	0.417	0.063	0.412	0.638	0.729
상수	5.692*	2.897	4.979*	2.559	-7.687*	3.535	-1.314	4.232
-2 Log Likelihood	378.834 **		243.689 ***		285.229		108.750	

*p < 0.05, **p < 0.01, ***p < 0.001

대해 불만족한 경험이 있을수록 장기지출율에 의한 재정상태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불만족스러운 경험이 순자산의 축적에 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지출율에 의한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유동성율 및 부채상환율에 의한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가계의 유동성율 및 부채상환율 준거기준에 의한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우선 55-64세 노인가계의 유동성율에 의한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거주지역이었다. 즉,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가계는 군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가계에 비해 재정안정상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 규모가 클수록 지불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양정선(1997)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이상 노인가계의 유동성율에 의한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교육수준, 과거경제경험, 자녀수였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과거경제경험이었다. 즉,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거 자신의 경제에 대해 만족한 경험을 할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재정상태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유동성율에 의한 재정상태의 정적 관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 양정선(1997)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수도 금융자산 축적에 정적 영향을 미쳐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채상환율에 의한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자녀수 및 거주지역이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주지역이었다. 노인가계에 동거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재정상태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군부지역에 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가계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기타지역 거주가계

<표 8> 노인가계의 유동성율 및 부채상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정안정상태 재무율 / 변 수	유동성율				부채상환율			
	55-64세(326)		65세이상(210)		55-64세(326)		65세이상(210)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가구주 및 부인관련변수								
가구주연령	-0.014	0.043	-0.038	0.032	-0.001	0.042	-0.058	0.040
가구주교육수준	0.026	0.031	0.079*	0.040	0.019	0.031	-0.090	0.047
가구주과거경제경험	0.243	0.154	0.522*	0.223	0.045	0.151	-0.126	0.225
가구주직업(취업)	0.428	0.272	-0.049	0.344	0.448	0.273	0.672	0.389
부인직업(취업)	-0.425	0.275	0.288	0.412	-0.222	0.272	0.145	0.459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								
자녀수	0.130	0.098	0.407*	0.184	0.200*	0.098	0.630**	0.203
가족형태(핵가족)	0.242	0.289	0.277	0.443	0.255	0.288	0.295	0.476
거주지역(군부지역)								
서울시	0.461	0.358	0.450	0.457	-0.743*	0.359	-0.572	0.552
광역시	-0.064	0.326	-0.277	0.450	-0.549	0.326	-0.425	0.521
중소도시	0.855**	0.322	-0.352	0.405	-0.345	0.311	0.157	0.428
상수	-0.805	2.640	0.376	2.413	-0.570	2.603	4.421	2.928
-2 Log Likelihood	427.764*		258.868**		435.268		218.116**	

*p < 0.05, **p < 0.01, ***p < 0.001

에 비해 도시가계에 거주하는 가계가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양정선(1997)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부채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가계의 부채상환율에 의한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수뿐이었다. 즉, 동거자녀수가 많을수록 재정안정상태를 나타냈는데 이는 동거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과 정적 관계, 그리고 총부채와는 부적 관계를 가져 부채부담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각 재무율의 준거기준에 의한 재정안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재무율분석과 재무율을 구성하는 객관적 측정지표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무계획 수립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연령집단별 재정상태는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득액, 총지출액, 최저생계비액, 총부채액 및 순자산액이 65세이상 노인가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단지 총자산액만이 두 연령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유량 및 저량 분석결과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재정상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선호에 근거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재정상태의 절대적 가치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나타난 현재 재정상태를 미래적 가치로 환산하여 은퇴후 소득과 지출, 은퇴후 보유할 총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추정하여야 하며, 소득액의 정확성, 경상지출과 임시지출의 구성, 자산액과 자산 포트폴리오의 정확성, 부채의 상환기간 등과 같은 자료의 정확성이 전제된다면, 시계열 분석뿐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령집단별 재무율 분석에 있어서 단기지출율과 부채상환율은 65세이상 노인가계가 55-64세 노인가계에 비해 불안정하였으며, 장기지출율과 유동성율은 65세이상 노인가계에 비해 55-64세 노인가계가 불안정하였다. 이처럼 재무율은 연령집단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준거기준에 가까운 단기지출율과 연령증가에 따른 단기지출율의 증가는 은퇴저축을 위한 재무계획이, 장기지출율의 증가는 은퇴후 순자산 보유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산형성과 투자에 관한 재무계획이 필요함을 제시해 준다. 또, 유동성율의 증가는 기대여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55-64세 노인가계가 사용할 금융자산 축적에 초점을 둔 재무계획과, 부채상환율 감소는 부채감소 및 자산증가에 관한 재무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율은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라 선정하였으므로 은퇴전의 재무계획을 수립할 때, 생애주기, 가족구성, 경제적 배경, 재무관리의 목적과 선호, 그리고 시간에 따른 가치변화 등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재정상태 분포에 대한 불평등도 분석에 있어서는 단기지출율이 다른 재무율에 비해 가장 평등한 분배를 보였으며, 유동성율, 장기지출율, 그리고 부채상환율의 순으로 갈수록 불평등도가 높았다. 이처럼 10분위계수를 적용한 불평등도 분석을 통해 유량 및 저량분석과 재무율분석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집단별 분포를 비교적 간단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무율 분포의 변화가 일어나는 각 분위를 평가할 때 두 측정지표중 어떠한 측정지표가 중요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측정지표들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량 및 저량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동시적으로 적용하여 재정상태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 Gini계수를 적용한 재무율 분포의 불평등도 분석에 있어서, 연령집단별 불평등도의 결과는 생애주기를 통한 금융정책이나 빈곤선을 책정하는 공공정책의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재무율 준거기준에 의한 재정상태를 보면, 단기지출율과 장기지출율에 따라 재정안정상태에 있는 가계의 비율은 55-64세 노인가계가 많았고, 유동성율과 부채상환율에 따라 재정안정상태에 있는 가계의 비율은 65세이상 노인가계가 많았다. 또 준거기준에 의한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55-64세 노인가계와 65세이상 노인가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재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기지출율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과거경제경험만이 유의했으므로 이에 대한 적합한 모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각 재무율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유의하지 않은 변수의 제거와 새로운 변수를 포함한 정교한 모형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김기덕 · 손병돈(1995). 1982-92년간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 변화추세: 소득원천별 사회보장수혜, 사적이전, 조세부담. 사회복지연구 6, 91-116.

2) 김순미(1993). 가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재무서비스 체계의 이론적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31(3), 89-100.

3) 김인정(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4) 김연정(1998a).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5) 김연정(1998b).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6) 김영규 · 김형규(1997). 재무관리 서울: 박영사.

7) 김태성(1995). 저소득층 소득분배 형태의 변화추세: 1966-1992. 사회복지연구 6, 35-69.

8) 류정순(1996). 한국 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9) 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

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6.

10) 문숙재 · 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11) 박홍림(1991), 미시경제학, 서울: 박영사.

12)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3) 이희숙(1995), 일하는 기간동안의 가계저축형태와 은퇴후 가계소비형태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6(1), 41-56.

14) 최윤지 · 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 · 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15) Bae, M., Hanna, S. & Lindamood, S.(1993), Patterns of Overspending in U.S. Househol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1-30.

16) Crystal, S. & Shea, D.(1990),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6(3), 227-247.

17) Davis, E.P. & Helmick, S.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18) DeVaney, S.A.(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1986,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31-46.

19) Fitzimmons,V.S. & Leach, L.J.(1994), Net Worth Change: Beginning and Expanding Life Cycle Stages, *Financial Counseling & Planning* 5, 65-83.

20) Foster, A.D.(1996), Employe participation in savings and thrift plans, *Monthly Labor Review*, 17-22.

21) Garman, E.T. & Forgue, R.E.(1997), *Personal Finance*, 5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2) Garner, I.T.(1993), Consumer Expenditures and Inequality: an analysis based on decomposition of the Gini coeffici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4, 306-316.

23) Grad, S.(1990), Earnings replacement rates of new retired worekrs, *Social Security Bulletin* 53(10), 2-8.

24) Griffith(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G. Langrehr, *The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23-131.

25) Hanna, S. & Prather, C.(1989), Net Worth over the Life Cycle, In R. Walker(ed.), *Families in transition: Structural changes and effects on family life. Proceedings of 1989 Pre-Conference Workshop*, VA: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6) Hong, G.S. & Swanson, P.M.(1995), Comparison of Financial Well-Being of Older Women: 1977 and 1989,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129-138.

27) Hurd, M.D.(1987), Savings of the Elderly and Desired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7(3), 298-312.

28) Hurd, M.D.(1990), Research on the Elderly: Economic Status, Retirement,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 565-637.

29) Kapoor, J.R., Dlabay, L.R. & Hughes, R.J.(1996), *Personal Finance*, 4th ed., Il: Irwin.

30) Kennickell, Starr-McCluer & Sunden(1997), Saving and Financial Planning: Some Findings from a Focus Grou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1), 1-8.

31) Li, J., Montalto, C.P. & Geistfeld, L.V.(1996), Determinants of Financial Adequacy for Retir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39-48.

32) Lytton, R.H., Garman, E.T. & Porter, N.M.(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4.

33) Mason, J.W. & Griffith, R.(1988), New ratios for analyzing and interpreting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ertified Financial Planners*, 71-87.

34) Mittra, S.(1993), *Practing Financial Planning - A Complete Guide For Professional*, M & A.

35) Prather, C.G.(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69.

36) Radner, D.B.(1987), Money Income of Aged and Non-aged Family Units, 1967-1984, *Social Security Bulletin* 50(8), 9-28.

37) Radner, D.B.(1990), Assess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and Non-aged Using Alternatives Income-Wealth Measures, *Social Security Bulletin* 53(3), 2-14.

38) Radner, D.B.(1992),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Social Security Bulletin* 55(3), 3-23.

39) Wang, H.(1995),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among Elderly Households: An Analysis Using The Gini Coefficient, *FERM Biennial*, 179-184.

40) Winger, B.J. & Frasca, R.R.(1993), *Personal Finance*, 2nd. ed., Merill Publishing Company.